

아들리의 독서토론 방법의 변용적 적용

: K대학교 아레테고전강독(호밀밭의 파수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손병용*

- I. 서론: 고전강독의 시의성
- II. 고전 읽기의 방법론: 독서와 토론 방법과 운용
- III. 아레테고전강독 호밀밭의 파수꾼 수업운영 사례
- IV. 결론

■ 국문요약

본고는 고전강독의 필요성과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독서 방법에 관심을 두고 K대학교의 고전강독 강좌의 운영사례를 살펴본다. 무수한 정보가 범람하고 다수의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전달이 성행하는 시기에, 그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유용한 것을 구분하는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해졌다.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넘어 그것을 분석하고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함양함에 있어 고전강독은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고전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와 논쟁을 담고 있는 보고이다. 『예일 보고서』에 따르면 고전강독은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이 됨

* 경남대학교 영어교육과, 부교수, gawain94@kyungnam.ac.kr

은 물론이고 평생 학습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즉 고전을 깊이 읽고 토론함으로써 지성적인 성찰은 물론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자기화함으로써 평생 학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K대학교의 경우도, 고전강독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주목하고 “아레테고전강독”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전읽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아들의러의 구분에 따른 제3수준의 독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독서의 제3수준은 분석적 읽기로 명명되며 주어진 텍스트를 철저히 읽고 이해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수업의 운영은 아들의러가 제안한 공동 탐구의 규칙을 따르되 몇몇 사항은 K대학교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였다. 아들의러는 정해진 범위를 미리 두 번 읽고 토론에 참가할 것과 공동지도자가 그 토론을 이끌 것을 제안한다. 토론은 해석적 질문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때 공동지도자는 해석적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의견개진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아레테고전강독 강좌의 경우, 1차시에서는 수강생 모두가 정해진 범위를 꼼꼼히 읽고 독서노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2차시에서 팀별토론과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공동지도자는 수강생들의 토론을 모두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대비시켜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토록하였다. 이는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과 대비시킴으로써 하나의 텍스트가 지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것과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들의러는 고전을 읽음에 있어 작가의 의도를 찾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주어진 작품을 꼼꼼히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나 자칫 수동적인 독자의 역할에 머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수강생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연결지어 작품을 몰입해서 읽도록 장려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자기 반영적 글쓰기로서 독서노트를 작성하도록 권장하였다.

주제어 ● 고전 강독, 문해력, 머티머 J. 아들의러, 독서 방법, 『호밀밭의 파수꾼』

I. 서론: 고전강독의 시의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은 시공의 장벽을 초월하고 수요자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학교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교수자에 의한 지식의 전수와 학습자의 받아들임이라는 소위 교과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육에 있어 일대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손동현은 지금의 학문세계가 “현장 밀착적 지식, 주관연관적 맥락적 지식, 그리고 융합적 지식이 지식사회의 중심에 오는 상황”(손동현, 2015, 146)으로 변모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교육은 “기성 지식의 전달-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손동현, 2015, 146)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공 중심의 대학 교육에 있어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전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을 익혀 평생 직업의 토대로 삼기에는 작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평생교육의 토대를 깔고 닦아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즉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과 통찰력, 종합적 사고능력을 함양”(손동현, 2015, 147)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초연결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방대한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가능한 시대이다. 유무선의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문자, 음성 그리고 영상 정보는 각종 포털 사이트들은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된다. 중요한 것은 이 무한의 정보들 중 무엇을 어떻게 습득하여 자기화할 것인가이다. 이에 따라 정보의 수용과 자기화에 있어 문해력(literac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상을 의미한다. 윤준채는 “문해력을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윤준채, 2009, 8)으로 정의한다. 이에 더해 임연정은

“문해력은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인재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역량으로 손꼽히며, 최근 들어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혹은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임연진, 2022, 26)이 있다고 평가한다.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첨단 기술에 따른 다양한 매체들에 접속 가능한 21세기의 복잡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15세 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 중 하나는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에 대한 아래의 그림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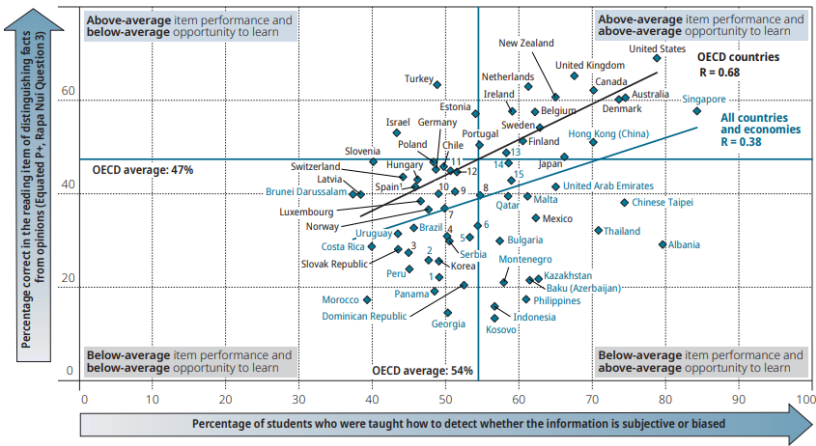


그림 1. 독서 자료에서 사실과 의견을 성공적으로 구별하는 비율과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될 수 있음을 배운 학생의 비율 (OECD 44)

이 그림에서 세로축은 독서 자료에서 사실과 의견을 성공적으로 구별해 낸 비율을 보여준다. 가로축은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될 수 있음을 배운 학생의 비율이다. 이 그림은 한국의 15세 학생들의 정보 식별능력과 그 학습의 기회가 평균 이하임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IT 강국으로서 무수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전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보를

계대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키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기기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자칫 그릇된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즉 글을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다음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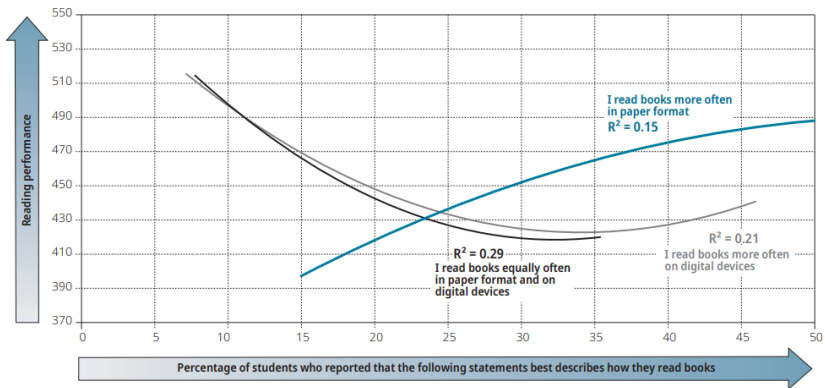


그림 2. 독서 능력과 독서 형식의 상관관계 (OECD 95)

위의 그림 2에서 세로축은 독서 능력의 수준을 보여준다. 가로축은 독서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의 비율을 보여준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푸른 색 선은 종이 형태의 책을 더 자주 읽는 유형이고 검은 색 선은 종이 형태와 디지털 기기를 같은 비중으로 독서에 활용하는 유형이다. 그림 2는 종이 형태의 책을 이용하여 독서를 더 많이 할 경우, 독서 능력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기가 주는 검색의 즉시성과 편의성 등은 유용할 수 있으나 단어와 문장 그리고 단락 등을 관조할 수 있는 종이책의 이점이 독서 능력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인 문해력의 기본이 되는 독서 능력은 첨단 디지털 기기가 아닌 전통적

인 종이 매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종이에 담긴 무엇을 읽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종이에 담긴 무엇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에 고전 읽기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읽기와 결합된 토론은 지식의 습득과 지적 기술의 발달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손승남 재인용, 2013, 456)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고전읽기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문해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임연정, 2022, 26)는 점을 고려할 때 종이책으로 된 고전을 읽는 것이 오늘날 한국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고전 교육을 옹호하는 『예일 보고서』에 따르면 고전 읽기는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최병문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직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바탕이 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강조한 토대란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해 주는 교육이다. 이는 곧 주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논증을 제시하며,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며, 상상력을 일깨워주고, 내 안에 잠재된 창의력을 맘껏 발산하도록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런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멀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길이, 바로 고전을 깊이 읽는 것이다.(최병문 외, 2017, 24)

고전 읽기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던 위대한 논쟁의 정수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헨리, 2009, 25)이라는 원론적인 교육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예일 보고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전 읽기는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여러 사상과 현대 생활의 동향을 감지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지성적으로 성찰하고 행동할 수 있

는 비판력을 길러주는”(최병문 재인용, 2017, 14) 평생 교육의 토대로서의 그 순기능에 대해 재차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이끌고 재해석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유의미한 가치를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고전을 읽고 분석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무수한 정보와 지식들 중 필요한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익히며 응용할 수 있는 평생의 학습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고전 읽기의 방법론: 독서와 토론 방법과 운용

K대학교 교양융합대학은 2021년 “인간과 사회, 세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 의사소통·공감·사회성·관계적 능력 향상, 독서전략 함양을 통한 사고력 향상”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아레테교육부를 설치하였다. 고전 읽기를 통해 “인간과 사회, 세계와 소통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사회성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함양하며, 다양한 독서전략을 익혀 문해력, 추론력, 비판력, 창의력 등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¹⁾이었다는 믿음에 따라 ‘아레테아카데미 고전 100선’을 선정하고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아레테고전강독’ 강좌를 2021년부터 교양필수 강좌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강좌는 고전 100선 중 해당 텍스트에 따라 ‘아레테고전강독(신곡)’과 같은 강좌명으로 운영된다.

고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고 유의미한 토론으로 이끌어 내어 그 시의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로 삼은 것은 허친슨의 『위대한 대화』²⁾와 그가 아들러와 함께 고안한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에

1) K대학교 교양융합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허친슨의 『위대한 대화』에 대한 내용과 그 주장은 차병문이 연구책임자로 작성한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의 10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조하고 재인용 하였다.

서 간행한 『공동탐구 입문』 그리고 아들러와 밴도린이 함께 쓴 『독서의 기술』³⁾이다. 이들에 따르면 “공동탐구는 주어진 작품을 주의 깊게 읽은 참여자들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려는 활동”(신득렬 재인용, 2018, 272)이며 토론 참가자들을 위한 독서 토론과 공동탐구의 규칙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도 공동탐구를 위한 규칙과 운영방안을 학기 초에 수강생들에게 공지한다. 우선 토론 참가자들이 따라야 할 공동 탐구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 ① 미리 읽으시오. ② 주의 깊게 읽으시오. ③ 반성할 시간을 가지시오. ④ 읽은 것만 토론하시오. ⑤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시오. ⑥ 토론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⑦ 책 전체를 토론하려고 하지 마시오. ⑧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오. ⑨ 자유롭게 말하시오. ⑩ 주의 깊게 들으시오. ⑪ 예의를 지키시오.(신득렬 276)

이 규칙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수업에 앞서 스스로 해당 텍스트의 정해진 범위를 읽어야 한다. 학생들이 미리 읽어야 할 해당 범위는 총 27개의 장으로 구성된 『호밀밭의 파수꾼』의 2~3개의 장으로 30여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다. 공동탐구에 따른 팀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강생들이 미리 이 분량을 읽고 주요 등장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과 같은 사실적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의 학생들이 꼼꼼히 읽기를 하지 않거나 아예 읽어오지 않은 경우 제대로 된 토론과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매주 1차시 수업을 수강생들이 해당 분량을 개별적으로 읽고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독서 노트로 작성하는 것에 할애한다. 수업시간에 해당 텍스트를 읽는 방법은 수강생 모두가 순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음독하거나 개별 학생들이 정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분량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3)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출간한 『공동탐구 입문』 그리고 『독서의 기술』에 대한 논의는 신득렬의 『교양교육』의 제5장 교양교육의 방법과 제7장 교양인을 위한 독서를 참조하고 재인용 하였다.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10개 정도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퀴즈를 수업시간에 본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매주 2차시에 있을 공동탐구를 준비할 수 있고 자신의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수강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글 읽기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들러와 밴도런은 『독서의 기술』에서 독자들이 도달해야 할 독서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독서의 제 1수준: ‘기초적인 읽기’로 명명한 이 수준은 문맹에서 벗어나 글을 읽기 시작하는 단계로 독서의 초보적인 기술은 보통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뤄진다.

독서의 제2수준: ‘주의 깊게 읽기’로 명명한 이 수준은 주어진 시간에 책 속에 가장 많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게 된다.

독서의 제3수준: ‘분석적 읽기’로 명명된 이 수준은 시간의 제한 없이 주어진 책을 가장 철저하게 읽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책을 이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의 제4수준: ‘통합적 읽기’로 명명된 이 수준은 가장 어려운 독서방법으로 다른 책들과 비교하며 책을 읽는 것으로 논문, 보고서, 단행본을 저술하는 사람들의 독서수준이다.(신득렬 재인용, 2018, 353-354)

본 강좌가 의도한 것은 수강생들이 책을 철저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아들러와 밴도런이 말한 제3수준의 독서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정해진 수업시간으로 인해 무제한의 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주별로 정해진 분량을 꼼꼼히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독서 노트를 작성하고 퀴즈를 풀어 봄으로써 독서의 제3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수강생들은 해당 분량에 대한 해석적인 질문을 독서 노트에 작성한다. 해석적인 질문은 “작가

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정은주, 2016, 155)에 관한 것으로서 텍스트의 내용에 근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위대한 저서 재단”(The Great Books Foundation)은 해석적 질문을 만들 때 “당신의 메모에서 등장인물이 말한 것, 행동한 것 또는 생각한 것 등의 뒤에 숨어있는 이유를 묻는 것을 찾아보라.”(정은주 재인용, 2016, 156)고 조언한다. 공동탐구의 토론은 이 해석적 질문을 토대로 진행된다. 사실적 질문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는 것이라면, 해석적 질문은 이를 바탕으로 토론 참가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견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기에 공동탐구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와 같이 작가의 의도에 대한 지나친 탐구로 이어질 수 있다. 작가의 의도 파악에 대한 강조는 신비평가들이 말하는 독자가 감정적 오류와 주관주의에 빠질 우려를 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개별독자가 가진 개인적 경험과 지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독서의 심미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강좌의 경우 해석적 질문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및 독서의 심미적 기능이 가진 순기능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석적인 질문은 텍스트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강생들에게 제시한다. 해석적 질문에 대한 의견 제시는 텍스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적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적 질문을 작성한 후, 주별 2차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동탐구 토론이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팀별 토론과 전체 토론이 이루어진다. 본 강좌의 수강생이 30명임을 감안할 때, 토론의 깊이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수강생을 4-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누고 팀원들 각자가 준비한 해석적 질문을 토대로 팀별 토론이 우선 이루어진다. 이후 공동지도자가 진행하는 전체 토론이 이어진다. “위대한 저서 재단”이 제시하는 공동탐구의 규칙과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작품을 읽은 사람만 토론에 참가 한다-책을 읽지 않은 참가자는 자신의 의견을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건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

② 토론은 참가자 모두가 읽은 작품으로 제한한다-이 규정은 모든 참가자들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작품으로 한정했기에 참가자 모두가 토론에 공헌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한 작품이 토론의 초점이 되면 모든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고 적절하게 뒷받침된 의견을 제시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모든 의견은 그 작품의 내용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참가자들이 자신의 말로 의견을 다시 말할 수 있을 때만, 그리고 그 진술은 그 작품 속의 내용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때만 외부의견을 도입해도 좋다. 참가자들이 작품 속의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은 좀 더 주의 깊은 독서를 하게 해준다.

④ 지도자는 질문만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해서는 안 된다-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요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지도자 자신과 참가자들이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지도자가 제시하는 “유일한” 정답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해석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지도자의 답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정은주, 2016, 147-148)

공동탐구를 성공적으로 이끌 선결 조건은 모든 참가자가 반드시 책을 읽고 토론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면서 다른 참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토론 참가자들은 해석적 질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텍스트의 내용에 기반을 두어 제시해야 한다. 텍스트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를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도록 한 것은 토론 참가자 모두가 지적 배경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분석할 공통의 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공동탐구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 토론 진행자인 공동 지도자가 따라야 할 규칙은 아래와 같다.

① 천천히 이끄시오. ② 참여자의 논평을 신중히 들으시오. ③ 아이디어를

적기 위해 좌석도를 규칙적으로 활용하시오. ④ 참여자들이 서로 말하도록 격려하시오. ⑤ 답을 찾도록 애쓰시오. ⑥ 아이디어들을 서로 관련짓는 동시에 기본적 문제와도 관련시키시오. ⑦ 자주 교재로 돌아가시오. ⑧ 참여자들이 여러분의 질문 안에 있는 가정에 도전하도록 자극하시오. ⑨ 참여자 모두가 기여하도록 기회를 주시오. ⑩ 종종 추수질문을 하시오.(신득렬, 2018, 277)

본 강좌의 운영은 “위대한 저서 재단”의 규칙을 대부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토론을 진행하는 공동지도자의 경우는 이를 변용하여 적용한다. 아들러는 두 명의 공동지도자들이 토론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공동지도자들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신득렬, 2018, 273) 역할을 수행해야하지만 본 강좌에서의 공동지도자들은 3명에서 4명을 한 팀으로 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교수는 이들의 진행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우에 부연설명을 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본 강좌의 공동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내용(전체적인 줄거리, 주요 사건, 인상적인 대목과 중요한 대목)을 우선 발표하고 이후 해석적 질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공동지도자들이 질문만 할 수 있고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규칙과는 달리 발표자들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그들의 의견을 정리한 후 자신들의 의견과 대비시켜보고 그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이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 자신의 의견과 대비시켜보면서 통합시킬 수 있는 경험을 얻기 위함이다.

아들러는 성공적인 토론을 이끌기 위해 사실적, 해석적, 평가적 질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평가적 질문은 주어진 텍스트를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위대한 저서 재단”에 따르면 평가적 질문은 “작가가 쓴 것에 대해 독자가 동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작품을 판단하는 질문이다. 평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독자 자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가치에 의존한다.”(정은주 재인용, 2016, 158) 본 강좌에서는 사실적 질문과 해석적인 질문을 토대로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의미한 토론을 완수한 후 평가적인 질문을

토대로 기말 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기 말에 팀별로 주어진 텍스트의 주제와 작가의 메시지 및 자신들의 생각을 토론한 후 평가적 질문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인 홀든 콜필드에 집중하여 분석할 경우, “홀든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말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와 같은 평가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역사적 맥락과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 소설을 분석할 경우, 1950년대 미국을 경제적 풍요의 사회이자 순응과 획일화의 사회라고 보았을 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홀든이 기성세대들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 취한 행동과 말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와 같은 평가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적 질문을 토대로 팀별로 기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레테고전강독은 주어진 텍스트의 사실적인 내용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및 비평적 관점에 따른 접근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이 심미적 독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는 고전 읽기의 효용성과 가치를 살리면서 수강생들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지각하며 즐기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텍스트가 가진 “심미적 가치는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라고 고정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것을 생성한다는 의미에서 미확정적인 가치이다”(차봉희, 1993, 28). 수강생들은 해석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텍스트가 지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목격하면서 텍스트가 지닌 심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로젠블랫은 독자가 “작품이 재현되는 과정에 완전히 몰입하여 텍스트가 전개되어 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각하고, 명료화하며, 구조화하고, 음미”(로젠블랫, 2008, 51)하면서 “텍스트로부터 재현해 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형상화해나가는 과정을 고찰”(로젠블랫, 2008, 54)하는 것을 심미적 체험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수강생들은 사실적·해석적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텍스트를 몰입하여 읽게 된다. 평가적 질문을 만들면서 이들은 텍스트를 꼼꼼히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이를 자기 것으로 형상화해 나가는 심미적 독서 경험을 갖게 된다.

Ⅲ. 아레테고전강독 호밀밭의 파수꾼 수업운영 사례

아레테고전강독은 K대학교의 교양필수과목으로 매주 이틀에 1시간 15분씩 진행된다. 출석 20%, 중간 및 기말 고사 각 15%, 과제물 35% 그리고 퀴즈와 발표가 15%로 성적에 반영된다. 성적평가 유형은 절대평가이며 전체 점수가 70점이 이상일 경우 Pass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Non-pass가 된다.

본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주어진 텍스트를 꼼꼼히 읽기를 선행한 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수업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해석적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강좌는 학생들이 작성한 해석적 질문을 토대로 토론 위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텍스트 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적 경험에 따른 논리의 비약이나 굴절을 막고 수강생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인상적인 대목을 직접 필사하고 본인의 경험과 결부지어 그 의미를 직접 적어보도록 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능동적인 고전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강좌는 일주일에 1차시와 2차시 두 차례로 나뉘어 1시간 15분씩 진행되었다. 1주일을 단위로 읽을 범위를 정하고 첫 번째 차시에서는 해당 범위를 학생들이 꼼꼼히 읽고 독서노트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의 글 읽기는 해당 범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독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해 함께 음독을 하거나 개별적인 묵독을 한다. 첫 번째 읽기의 목적은 해당 범위의 줄거리, 배경, 등장인물 그리고 주요 사건의 파악이다. 담당 교수의 개입 없이 오롯이 수강생 스스로 해당 범위를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독서노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해당 범위의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담당교수와 학생 본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적 내용을 묻는 객관식 퀴즈 10문제를 K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풀어보게 했다. 1차시 수업을 마치고 2차시 수업에 참석할 때까지 수강생들은 해당 범위의 표면적 내용뿐만 아니라 심층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 번 더 정독하고 독서노트에 해석적 질문 두 가지를 작성한다.

2차시 수업은 팀별 토론과 전체토론으로 구성된다. 우선 팀별 토론은 30분 정도 이뤄지며 1차시에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중요한 부분, 인상적인 부분 및 해석적인 질문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이루어진다. 팀별 토론의 결과는 토론 기록지에 작성하여 주별 과제로서 학습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토론 기록지의 경우 그 작성 방법을 학기 초에 공지한다. 수강생들이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기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중요 대목 및 인상적인 대목 그리고 해석적 질문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나의 단락으로 작성토록 하였다. 단락은 의견(opinion), 이유(reason), 텍스트에서 찾은 구체적인 사례(example) 그리고 핵심 의견 강조(opinion)로 구성할 것을 강조한다.⁴⁾ 이후 45분정도 진행되는 전체 토론은 팀으로 구성된 토론 지도자에 의해 진행된다. 토론 지도자는 해당 범위에 대해 미리 준비한 다섯 가지 정도의 해석적 질문을 중심으로 전체토론을 이끈다. 각각의 해석적 질문은 2차시 수업을 시작하기 이틀 전 LMS의 ‘열린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미리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수업에서 토론 지도자는 해석적 질문을 3명의 학생들에게 제기함으로써 적어도 전체 수강생 30명 중 절반 이상이 전체토론에 직접 참여할 있게 하였다. 토론 지도자는 해석적 질문에 대한 동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부동의하는 의견 또는 이견이 있는 학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토론 지도자는 자신들이 준비한 해석적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이 있는지를 동료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이끌게 된다. 토론 지도자의 해석적 질문과 다른 질문이 많이 제기될 경우 전체토론은 더욱 활성화되고 전체 수강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교수는 이러한 해석적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보충해주거나 추가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토론에 개입한다.

2차시 수업이 마치면 토론 지도자는 수업시간에 제기된 학생들의 의견을

4) 의견(Opinion), 이유(Reason), 구체적인 예(Example), 핵심의견을 강조(Opinion)의 앞 글자를 딴 OREO맵은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글쓰기로서 송숙희가 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에서 차용하여 적용하였다.

정리하여 학습관리시스템의 ‘열린게시판’에 공지한다. 아울러 수강생들은 독서노트에 해석적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반영적이고 성찰적인 내용을 기입한다. 이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대화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신충식 185, 2015, 재인용)이라는 가다머의 주장처럼 문학 텍스트 읽기를 통한 자기 성찰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심미적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해 독서노트 작성시 자기반영적 글쓰기를 적극 권장하였다. 로젠블랫이 주장한 바와 같이 텍스트를 읽고 심미적 독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독자는 “특정 텍스트와 관계를 하는 동안 자신이 겪게 된 것”(로젠블랫, 2008, 43)에 직접적인 관심을 쏟게 된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으면서 20대 초반의 수강생들이 자신의 성장기와 견주어 자기 반영적인 글 읽기를 수행하면서 심미적 경험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자기 반영적 글 읽기와 글 쓰기는 『공동탐구 입문』이 제시하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다분히 신비평적인 글 읽기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의 개인적 경험을 투영한 텍스트와 독자의 소통형 글 읽기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독서노트는 수강생들이 매주 읽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추기 위해 작성해야 되는 이 강좌의 과제물들 중 하나이다. 독서노트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겼지만 독서노트의 목적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미리 공지하였다. 수강생들은 각장의 소재목과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에 대한 소개, 시간적·공간적 배경, 인상적인 대목에 대한 필사 그리고 각장에서 제기할 만한 해석적 질문 하나는 반드시 독서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 반영적인 내용에 대한 성찰적 글 읽기에 따른 기록은 필요시 마다 작성하도록 하였다. 독서노트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은 매주 이루어진다. 30명이라는 수강생을 고려할 때 매주 모든 학생들의 독서노트를 검토하기란 용이치 않다. 따라서 한주에 6명의 독서노트에 대해 피드백을 수행한다. 이 경우 한 학생에 대한 2-3번의 피드백이 한 학기에 가능하다. 피드백의 경우, 그 회차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데, 1회차 피드백에서는 독서노트 작성

방법과 해석적 질문 만드이기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할 학생들에게 종이에 무언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의 경우, 내용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체계적으로 독서노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 경우 다양한 독서노트 작성 사례를 통해 학생 본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작성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는 획일적인 방법에 따른 독서노트 작성보다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사실적인 질문과 해석적인 질문으로 구성된다. 사실적인 질문의 경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데 수강생들이 해당 범위를 한 번 더 꼼꼼히 읽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해석적 질문의 경우 전체 토론에서 다룬 것들 중 가장 활발한 갑론을박을 이끌었던 것들로 출제하였다. 해석적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의견, 이유, 텍스트에서 찾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핵심의견 강조로 구성된 한 단락의 서술을 요구하였다. 이는 수강생들이 전체 토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이 끝난 후에도 자기 의견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호밀밭의 파수꾼』을 다 읽고 나면 팀별 토론을 통해 각 팀마다 주제를 정하고 이를 기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기말 보고서의 주제는 아들러가 말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말은 옳은가?”(정은주 재인용, 2016, 4)와 같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이해를 분명히 한 후 독자에 의해 제기되는 평가적 질문을 토대로 한 비평 활동의 일환이다. 아들러 텍스트와 개인적 경험 사이의 상호 소통이라는 심미적 독서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환이다. 차봉희는 “텍스트의 잠재적인 가능성이란 곧 각자의 독서에서 이루어지는 개성적인 실현”(차봉희, 1993, 21)이 심미적 독서의 첩경임을 주장하면서 독자는 작품의 의미파악뿐만 아니라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기말 보고서는 팀별로 『호밀밭의 파수꾼』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와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팀 구성원들은 각자의 “과거 경험을 적극적

으로 끌어내는 코드화된 상징들로부터 ‘의미’를 불러 일으켜”(로젠블랫, 2008, 39)내고 이를 기말 보고서에 담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다. 수강생들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수동적인 독자에서 그 의도를 재해석하고 텍스트를 재구성함으로써 능동적인 독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개인적 경험을 투영함으로써 심미적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IV. 결론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어준다. 단 이 기술을 인간이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말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어떤 장벽도 없이 인간과 무수한 정보를 연결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은 물론 학문 분야에서도 필요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정보를 문자와 음성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영상정보 매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정보의 양과 질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즉 무엇이 나에게 유용한 정보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는 현대적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각종 디지털 매체가 양산해 내는 방대한 정보를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습득 역량으로서의 문해력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다.

정보통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정보 식별능력과 이를 위한 학습의 기회가 평균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고전 읽기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전은 세월의 시험을 거친 인류 보편의 지혜와 논쟁을 담고 있다. 고전을 꼼꼼히 읽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한 독서력은 무수한 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습득하고 익히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평생 교육의 토대

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고전읽기의 유용성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강조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읽고 토론할 것인가라는 방법에 있다. 아들러와 허친슨 등은 일찍이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어떻게 읽고 토론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이들은 사실적, 해석적 그리고 평가적 질문을 통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고전 읽기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공동탐구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운영 방안 그리고 변용적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에 더해 심미적 독서 경험을 위한 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 읽기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독서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지각함에 따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참고문헌〉

- 로젠블랫, 루이스 미셸, 2008, 김혜리·엄해영 역,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 손동현, 2015, 「기술의 힘과 교양의 힘」, 『후마 포럼』 제1권 1호, 후마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1-9.
- 손승남, 2013,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우리나라 대학 인문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7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449-472.
- 송숙희, 2020,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유노북스.
- 신득렬, 2018, 『교양교육』, 겨리.
- 신충식, 2015, 「자기 형성과정으로서의 ‘인간의 가치 탐색’-‘후마니타스 칼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후마 포럼』, 제1권 2호, 후마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179-225.
- 임연정, 2022, 「문해력 기반의 통합적 고전읽기 교육 설계 고찰-〈명저읽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6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5-37.
- 윤준채, 2009, 「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제19권 2호, 5-16.
- 정은주, 2016, 「아들러의 독서토론 방법에 관한 연구 - 공동탐구 입문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한국교육철학회, 61호, 143-167.
- 차봉희, 1993,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 최병문 외, 2017,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헨리, 마크, 2009, 강유원 외 역, 『인문학 스테디』, 라티오.
- OECD (2021), <https://doi.org/10.1787/a83d84cb-en>. (검색일: 2022.10.08.).

Modified application of Adler's Reading Method:

Focusing on 'Reading Arete Classics' of K University

Son, Byung-yong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necessity of reading classics, how to read books effectively and the operation case of reading classics in K university. In this age of information overflow, the more emphasis is putting on the capacity to think and discriminate it critically. The attention is turned to the way to improve the critical and active literacy beyond just reading and writing.

Reading classics with comments is a good way to cultivate the literacy. Classics are precious repositories containing universal debates and wisdom. According to *Yale Report* reading classics helps improve literacy and lay a good foundation for lifelong study. By reading and discussing them closely and deeply, we can attain the ability of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as well as analytical and problem-solving skills. And these can lead to self-study for life.

K university also detected the importance of reading classics and opened 'Reading Arete Classics' as a compulsory subject. According to M. J. Adler's classification, the 3rd level of reading was set to conduct reading efficiently and draw a positive effect. The 3rd level of reading is called as analytical reading and aims at close reading and understanding text thoroughly. Adler penetrated the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reading classics and designed the effective reading method such as interpretive questions and shared inquiry. K

university also adopted the Adler's method to improve its students' literacy. Furthermore, 'Reading Arete Classics' modified the method suggested by Adler to heighten the effect and give its students aesthetic reading experience. Adler recommends students read the text before class and co-leaders conduct discussion without any comments on students' opinion. However, in this class students read the text at the 1st session of each week and write reading note. At the 2nd session of each week co-leaders conduct discussion, listen to students' opinion, compare with theirs and draw comprehensive opinion. This allows students to experience the possibility of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 on one text and to put together the thread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students read the text and associate it with their own experience to get the aesthetic experience. And students write their reading note as a self-reflective writing.

Keyword ● reading classic with comments, literacy, Mortimer J. Adler, reading method, *Catcher in the Rye*

|| 논문투고일 : 2022. 11. 29. || 심사완료일 : 2022. 12. 13. || 게재확정일 : 2022. 12. 14.